

새로 나온 책

눈앞에 놓인 복원의 시대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가 올라갔다. 앞으로 0.5도가 더 높아지면 인류는 멸종 위기의 생물종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 줄여야 한다. 미래학자 제프리 리프킨은 인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무사히 헤쳐나가기려면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글로벌 그린 뉴딜

제프리 리프킨 저/안진환 옮김/민음사

그린 뉴딜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와 시장 창출계획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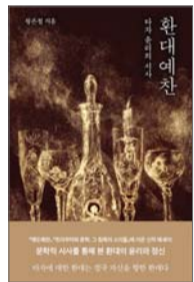
경제 주체들은 화석연료에서 이탈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로 갈아타고 있다. 리프킨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발생할 수조 달러의 좌초 자산이 2028년 탄소 버블을 터트리며 화석연료 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좌초 자산은 수요가 줄어 채굴되지 않고 남은 모든 화석연료와 버려진 송유관, 폐기된 석유화학 공정시설 등을 일컫는 말이다. 태양·풍력발전엔 투입되는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앞으로 8년 이내에 화석연료 업계와 결전을 치른다는 것이다.

저자는 ▲휘발유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 ▲자율 주행 차량 도입이 물류 운송부

에 격변을 일으키며 좌초 자산을 남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정치에 영향을 행사할 준비가 있고, 기꺼이 그러고자 할 의지가 있는 40대 이하의 젊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그린 뉴딜 운동의 중심이 돼 탄소 제로 생태 시대를 이끌 것으로 예측한다. 책은 젊은 세대를 필두로 한 지구인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기후변화로 인한 종말로부터 탈출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낙관한다. “복원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새로운 세상의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생물종으로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

32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환대에찬



왕은철 저/현대문학

책은 인간이 빚어낸 환대의 방식과 윤리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 시대가 주목할 문학적 서사를 통해 재해석한다. 저자는 나치 독일과 유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과 흑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등 이해와 적대를 둘러싼 인간의 갈등관계가 만들어내는 폭력과 증오, 잔인한 전쟁 속에서 희생된 ‘타자’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타자에 대한 환대는 결국 자신을 향한다.

460쪽. 1만5800원.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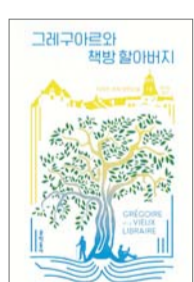
마크셀 랑어데이크 저/유동익 옮김/푸리에북스

책은 저자가 동생인 마르크 랑어데이크의 안락사를 지켜보며 쓴 에세이다. 삶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람들과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은 소리 없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 네덜란드에서 전하는 완성된 삶에 관한 이야기.

236쪽. 1만5800원.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마크 로제 저/유미연 옮김/문학동네



프랑스 대중 낭독가이자 저자인 마르크 로제 프랑스 전역의 서점과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해왔다.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는 책과 담을 쌓고 살아가던 소년과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평생 책과 문학을 사랑해온 노인의 우정을 다룬다. 소리 없이, 말쑥 없이 죽어가는 공간에서 살아가던 노인들은 낭독을 통해 열정과 기쁨을 되찾는다.

316쪽. 1만3800원.

자전거·레저장비 기술개발 최대 3억 지원

중진공-산업부,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20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액은 총 18억원이다.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레저장비 기술개발’의 경우 오는 3월4일, ‘레저장비 맞춤형사업’은 오는 3월6일까지 각각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레저장비 기술개발 사업은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및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3억원(총 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지원한다.

레저장비 맞춤형사업과 사업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 성공 후 매출발생이나 양산화 등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코칭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을 최대 50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청년몰에 모인 청년들이 상권 살렸어요”

전통시장, 청년 품고 활력 UP!

침체된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모이면서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생기발랄함으로 청년몰에 입점, 사업을 통해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다.

특히 청년몰이 들어서며 살아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명소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청년몰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점포를 활용해 39세 이하 창업 청년들 20곳 이상이 입점한 몰(mall) 형태의 일정 구역을 말한다. 청년몰엔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도 갖춰놓고 있다.

소진공은 지난 2016년부터 청년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개선한 바 있다. 올해엔 ‘혁신형 청년몰’을 도입하는 등 청년 상인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9일 소진공에 따르면 충남 천안 명동대흥로상점가에 내에 있는 ‘흥흥발전소’는 쇠퇴기를 겪은 후 다시 살아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몰 가운데 하나다.

한 때 ‘천안의 명동’으로 불렸던 대흥로상점가는 2005년 당시 천안시청이 인근 지역인 불당동으로 옮기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상점가 앞에 있는 천안역의 기능이 KTX 천안아산역으로 분산된 것도 상점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다 청년들이 나서 지역 상권을 살려야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7년 당시 청년몰이 조성된 후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지금은 19명의 청년 상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흥흥발전소’로 이름 붙여진 청년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이뤄져있다. 여기에는 옷가게(지하)를 비롯해 음식점(1층), 공방 및 체험 카페(2층), 타로 공방 및 방향제



흥흥발전소에서 체험 공방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양두 이지는 대표(36)가 수제쿠키를 포장하고 있다

중기부-소진공 청년몰 사업 순항 개별창업서 ‘복합몰’ 형태로 확대

천안 ‘흥흥발전소’ 방문객 증가세 체험형 점포 많아 고객 발길 늘여

(3층), 화장품 및 서점(4층) 등이 들어서었다.

특히 천안 ‘흥흥발전소’ 청년몰은 다른 지역의 청년몰과 달리 공방의 비중이 높아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청년몰 조성 때부터 터를 잡은 ‘양두’의 이지 대표는 “처음 청년몰이 오픈했을 때 당시 다양한 팀들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었다”면서 “그런데 당시 공방을 차렸던 점포들은 다양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착실히 했고, 저마다의 역량을 통해 생존력이 높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경우도 소진공의 청년몰 도약지원사업을 통해 매장 진열 등 전문가 맞춤형 교육을 받아 보다 빨리 사업이 안착될 수 있었다. 또 입점 초기의 임대료 지원도 단비가 됐다.

천안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단 정승



충남 천안 명동대흥로상점가에 위치한 청년몰 ‘흥흥발전소’ 전경.

단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초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면 청년몰 방문객이 월평균 7.4% 늘었고, 체류고객은 월평균 5% 씩 증가했다”면서 “청년몰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이는 곧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와 소진공은 청년몰 조성사업 초기였던 2015년 당시 개별 창업을 적극 지원하던 것에서 실패율을 줄이고 다양한 방문객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쇼핑, 관광, 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몰’ 형태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경동나비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라인업 확대

‘NCB300’ 시리즈 출시
질소산화물 배출량 ↓
가스비 28% 절감 효과

경동나비엔은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갖춘 보일러 ‘NCB300(사진)’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NCB300 시리즈는 4월부터 시작되는 친환경보일러 의무화에 맞춰 소비자들 선택 폭을 늘려주기 위해 준비했다. 이에 따라 탁월한 난방 성능과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인 NCB900, 700시리즈, 그린 테크놀리지를 적용해 콘덴싱보일러의 표준을 제시한 NCB500시리즈에 이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라인업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NCB300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기술로 미세 먼



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79% 감소시키며,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적용해 처음 열효율을 변함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높은 에너지 효율로 최대 28.4%의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제성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대비 20% 작아진 슬림 사이즈로 설치와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이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효율 92% 이상, 질소산화물 배출량 35mg/kWh(20ppm) 이하, CO(일산화탄소) 100PPM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마크 인증도 획득했다.

안전성과 편의성도 탁월하다. 보일러로 투입되는 공기량에 맞춰 최적의 가스 비율을 유지하는 ‘CO Safety 가스밸브’를 적용해 언제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집 배관 구조와 설정된 난방 온도에 따라 알맞은 난방수를 공급해주는 바이패스 밸브도 적용해 대형주택부터 작은 원룸까지 모든 집에서 난방 불균형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